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	**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** 전문공보담당자 부장검사 이상록 전화 041 660 4328 / 팩스 041 660 4329	**보 도 자 료** **2020. 8. 3.(월)**
제 목	**한국서부발전(주)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사건 수사 결과**	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☑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(제12조 제1항)

※ 2020. 8. 3. **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**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

- 금일(2020. 8. 3.)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(지청장 정연헌)은 2018. 12. 11. 한국서부발전(주) 태안발전본부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소속 **근로자 사망 사건**을 수사한 결과,
  - 원청인 **한국서부발전(주) 대표이사 등 임직원 9명**, 하청업체 **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** 및 **원·하청 각 법인**을 **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**하였음
- 책임자들에게 각 **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**을 다하고, 앞으로도 **산업재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의 근본적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**함으로써 **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**할 예정

Ⅰ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- **피고인**(별첨 피고인 명단 참조)
  - 원청 : 한국서부발전㈜(원청 법인), A○○(62세, 원청 대표이사) 등 10명
  - 하청 : ㄱ기술㈜(하청 법인), J○○(67세, 하청 대표이사) 등 6명

- **공소사실 요지 및 죄명**
  - **[피고인 A○○~N○○ 등 14명]** 2018. 12. 11.경 한국서부발전㈜ 태안발전본부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조치가 미비된 9호기 ABC컨베이어벨트에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여 벨트 및 아이들러(롤러)에 신체가 협착되어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**【업무상과실치사】**
  - **[피고인 A○○, B○○, C○○, J○○, K○○]** 2018. 12. 11.경 한국서부발전㈜ 태안발전본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**【산업안전보건법위반】**
  - **[피고인 A○○, B○○, C○○]** 2018. 12. 11.경 한국서부발전㈜ 태안발전본부에서 컨베이어벨트의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ㄱ기술의 사용에 제공함으로써 **【산업안전보건법위반】**
  - **[피고인 C○○, K○○]** 2018. 12. 11.경 한국서부발전㈜ 태안발전본부에서 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9, 10호기를 가동함으로써 **【산업안전보건법위반】**
  - **[피고인 한국서부발전(주), ㄱ기술(주)]** 2018. 12. 11.경 한국서부발전㈜ 태안발전본부에서 사용인들인 A○○, B○○, C○○, J○○, K○○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**【산업안전보건법위반】**

Ⅱ 수사 경과

’19. 1. 8.	고소·고발장 접수 및 태안서·노동청 지휘
’19. 11. 22./12. 6.	태안서 및 서산노동청 사건 송치
’20. 1. ~ 6.	피고인 및 참고인 등 소환 조사 등 보완수사
’20. 6. 12.	**한국서부발전(주) 본사 등 압수수색**
’20. 6. 12. ~ 7. 31.	압수물 분석 및 법리 검토 등 보완수사
’20. 8. 3.	**피고인 16명 불구속 기소**

Ⅲ 수사 의의

-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부문을 하청업체에 도급·위탁하는 방식인 소위 '위험의 외주화'의 구조 하에서 원청과 하청 소속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인 지휘·감독 관계를 규명하여 원청 역시 안전사고에 있어 책임자임을 확인
- 특히, 원·하청의 대표이사들이 유사한 안전사고가 빈발하여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표이사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위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 규명하여 기소

Ⅳ 향후 계획

-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, 앞으로도 산업재해에 대한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의 근본적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 ▨

[별첨]

피고인 명단

소속	순번	피고인	직급	처리결과
원청	1	A○○(남, 62세)	대표이사	불구속 구공판
	2	B○○(남, 61세)	본사 기술안전본부장	불구속 구공판
	3	C○○(남, 59세)	태안발전본부장	불구속 구공판
	4	D○○(남, 58세)	태안발전본부 기술지원처장	불구속 구공판
	5	E○○(남, 56세)	태안발전본부 연소기술부장	불구속 구공판
	6	F○○(남, 48세)	태안발전본부 연소기술차장	불구속 구공판
	7	G○○(남, 59세)	태안발전본부 석탄설비부장	불구속 구공판
	8	H○○(남, 56세)	태안발전본부 석탄설비차장	불구속 구공판
	9	I○○(남, 56세)	태안발전본부 계전과 차장	불구속 구공판
	10	한국서부발전(주)	법인 사업주	불구속 구공판
하청	1	J○○(남, 67세)	대표이사	불구속 구공판
	2	K○○(남, 68세)	태안사업소장	불구속 구공판
	3	L○○(남, 65세)	태안사업소 안전관리차장	불구속 구공판
	4	M○○(남, 65세)	태안사업소 운영실장	불구속 구공판
	5	N○○(남, 66세)	태안사업소 연료운영팀장	불구속 구공판
	6	ㄱ기술(주)	법인 사업주	불구속 구공판